



베르디가 남긴 비극 현대적으로 재해석

▶ 익산예술의전당, 오페라 '리골레토'

주인공에게 닥친
잔혹한 운명 다뤄
공연은 17일부터 이틀간

베르디가 남긴 가장 비극적인 오페라 '리골레토'가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익산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이 작품은 지난 10월 서울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가진 후,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익산예술의전당을 찾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익산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이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모에 선정돼 선보이는 작품이다. 베르디의 대표작 '리골레토'는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오페라 레퍼토리 중의 하나로, 프랑스 낭만주의 거장 빅토르 위고의 희곡 '환락의 왕'을 오페라로 재탄생시켰다. 작품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저항심으로

가득 찬 주인공 리골레토에게 닥친 잔혹한 운명과 비극적 최후에 대해 다룬다. 부도덕하고 방탕한 귀족사회를 벌하려다 오히려 자신의 딸을 죽이게 되는 리골레토의 절망적인 운명을 그리고 있다. 공연은 고전을 뛰어넘는 현대적 재해석이 돋보인다. 아름다운 선율의 오케스트라 연주와 무대를 꽉 채우는 100여명의 출연진 그리고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자의 마음', '그리운 이름이여' 등 작품 곳곳에 삽입된 아리아는 오페라 마니아는 물론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객 모두 자연스럽게 극 속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 공연문의는 전화(063-859-3254)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오페라 '리골레토' 포스터



남편을 잃은 슬픔
카메라로 극복하다

Family
Jo, Wan Soon
Photo Exhibition

전주영화제작소 무료대관공모전시 조완순 작가의 '가족' 전 26일까지

전주영화제작소의 2017 무료대관공모전시 '가족'이 전주영화제작소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선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 보낸 후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눌렀던 조완순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품에는 작가의 방황하는 심리와 불안, 슬픔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심리가 담겨져 있다.

조 작가는 작품을 통해 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신과 그 가족들이 흐릿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속 사물, 공간 그리고 사물과 사물, 사물과 공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남편을 떠나보낸 후의 시간을 회상하는 동시에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과 공감을 나누고 위안을 건네고자 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매주 월요일 휴관). /정해은 기자

윤채연·박진솔·유승하 전북 중고생 이야기대회 1등 상 '한빛상' 수상

내달 전국대회 전북 대표로 참가

윤채연(효문여중 2년), 박진솔·유승하(전북여고 2년) 학생이 제14회 전북 중·고등학생 이야기대회에서 1등 상인 한빛상을 수상했다. 전북국어교사모임(회장 김형훈)이 주관하고, 최명희문학관(관장 장성수)과 전북작가회의(회장 김병용) 등이 주최한 이 대회는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세 시간 동안 최명희문학관에서 열렸다. 심사결과 '우리 아버지'를 주제로 무대에 선 윤채연 학생과 '전라도 나뉘는 미덕'을 발표한 박진솔·유승하 학생을 비롯해 중등부 2팀, 고등부 7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상봉 김재청하중학교 교사, 서철원 소설가, 이광한 대중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은 "청소년들이 옛이야기를 자신의 상황에



윤채연(효문여중 2년), 박진솔·유승하(전북여고 2년) 학생이 제14회 전북 중·고등학생 이야기대회에서 1등 상인 한빛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한빛상을 수상한 학생들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맞춰 다시 구성해 말하거나 가족과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재치 있고 능청맞은 입담으로 들려주면서 정중의 큰 호응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우수 수상자는 오는 12월 서울 한양대학교에

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평론가 호병탁, 아름다운 문학상·시인 김기화, 은글문학상 수상자에

전주은글문학회(대표 김동수)는 평론가 호병탁 씨를 '제6회 아름다운 문학상', 시인 김기화 씨를 '제9회 은글문학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했다. 아름다운문학상을 받게 되는 호병탁 평론가는 제1회 군산문학상과 제18회 표현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시집으로는 칠산주막과 평론집 내비의 궤적이 있다. 현재 문예지 시선, 에세이 21, 미담문학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호 평론가는 "올해도 30여 편의 작품을 썼으니, 어영부영 놀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변치 않고 묵묵히 글 쓰는 일

에 열중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은글문학상을 수상한 김기화 시인은 2004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 시집 산 너머 달빛과 고맙다 등을 발간했다. 현재 미담문학회와 현대불교문인협회, 전북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김 시인은 "취미도 자랑도 아닌 구도자의 자세로 시를 쓰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상식은 내달 7일 오후 3시30분 전주초원갈비 연회장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호병탁



김기화

전북시인상에 전길중 시인 선정

전북시인협회(회장 조미애)는 전길중 시인(시진)을 제18회 전북시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작은 '화산공원'이다. 서재균·김남곤 심사위원은 "전길중 시인의 시는 자신이 평소 피력했듯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대상을 사유하기도 하지만, 주관적인 관점으로 본질과 존재를 파악해 독자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화산공원'에서



역시 주관적인 관점에서 삶에 대한 회의의 해답을 얻어내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대칭되는 자연 현상의 의연한 질서를 투시함으로써 의식의 전환을 꾀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전북문학관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